

# 선호부위 생산량 제고를 위한 한국형 종돈개량



오 하 식 박사  
가야육종 대표이사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하여 우리의 것을 특정지어 표현할 때 '한국형'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그래서 70년대에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말까지 범람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형 종돈이란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잘 적응하면서 우리 국민의 기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돈이 바로 한국형 종돈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농가의 실정에 맞고 우리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하여 사육이 용이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부위를 많이 생산하고 좋은 육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양돈농가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종돈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확실하게 이것이 한국형 종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고 육종체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돼지고기 소비 취향은 삼겹살과 목살 등 일부 부위에 편중되어 있어서 삼겹살 가격이 비 선호 부위에 비하여 3~5배의 고가로 판매 되고 있고 안심, 등심, 후지 등 비 선호 부위의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선호 부위 위주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되고, 때로는 수입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특정 부위를 특별히 많이 생산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육종방향이 소비시장의 추세와 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종돈개량의 방향과 우리의 식문화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생고기 구이의 식문화와 삶은 식문화를 가장 선호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삼겹살과 목심 같은 생고기를 굽는 문화가 주를 이룬다. 이런 이유로 삼겹살은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표 1〉 돼지의 부위별 구성비와 돈육 소비의 구성비 불균형

부 위	안심/등심	삼겹살	목 살	갈 비	앞다리	뒷다리	잡 육
돼지 부위별 구성비	17%	17%	9%	8%	16%	26%	7%
돈육 소비 구성비	10%	24%	10%	8%	19%	17%	12%

※ 출처 : 축진요크와 축진랜드를 활용한 고품질 브랜드돈육 생산, 김명직 2007년

생산농가들의 삼겹살과 목심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선호부위에 대한 종돈의 개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가. 한국의 종돈개량

현재 한국의 종돈은 미국과 유럽에서 원종돈을 수입하여 후대를 생산하고 육종개량을 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입종돈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육종개량이 이루어져 왔고 계속 개량중이다. 이는 곧 외국의 입맛에 맞게 개량된 돼지를 가져와 우리의 환경이나 입맛에 맞는 돼지로 개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종돈의 개량이 소비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호부위의 가격은 오르고 비 선호 부위의 재고는 누적된다. 이로 인해 돈가는 떨어지고 농가에 손실로 되돌아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선호부위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된다.

이는 곧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부위의 생산량을 제고시키는 돼지의 개량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식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다. 국가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인공수정소에서 나뉠대로의 궁지를 갖고 육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하여 육질의 개량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 오고 있다.

### 나. 종돈개량 방향의 문제점

#### 1) 국내 환경에 적합한 종돈개발의 미비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원종돈을 수입하여 후대를 생산한다. 이로 인해 한국형 종돈은 부재 상태이고 지속적인 종돈의 개량보다는 수입에 의존한다. 이는 국내 환경 적용성 저하에 의한 도입 종돈의 조기도태와 종돈 도입 확대에 따른 종돈산업 종속 우려 및 생산비 증대를 가져온다.

#### 2)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한 고능력 계통돈 개발 필요

돼지 자체의 균일도를 높이고 선호부위의 규격화된 생산이 필요하고 소비자 성향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계통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고능력 계통돈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 다. 돼지부위별 구성비와 수급의 불균형

〈표 1〉을 보면 안심/등심, 삼겹살, 뒷다리등의 주요 부위의 심한 수급 불균형을 알 수 있다(출처 : 축진요크와 축진랜드를 활용한 고품질 브랜드돈육 생산, 김명직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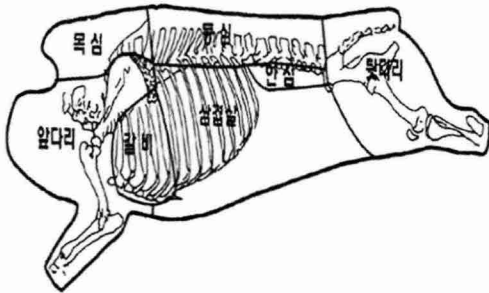
이처럼 국내 양돈업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인 수급불균형, 즉 삼겹살, 목살부위는 소비량에 비해 국내 공급량이 부족한 반면 뒷다리 및 등심/안심 부위는 소비량 대비 과다한 공급현상이 국

내 양돈산업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2. 선호부위 생산량 제고를 위한 종돈개량

한 나라의 뿌리 깊은 문화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그러하다. 그러면 한·미 FTA를 넘어 이제 한·EU FTA의 체결도 멀지 않아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2개의 거대국은 양돈산업의 선진국이며, 우리나라 수입종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나라와 나라사이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그 나라의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그들은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고 특정 부위에 대한 물량공세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1> 돼지부위별 구성

### 가. 한국형종돈의 개량

선진 양돈 국가들은 괄목할 만한 돼지 육종 체계를 수십 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의 양돈 규모는 현격한 성장을 이루어, 외형적으로는 외국 선진국과 비교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육종 체계가 미비하여 필요한 종돈 전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현 돼지 육종체계가 형식에 그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개량방향의 설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 1) 한국형 종돈개량의 관점에서 현 육종체계의 아쉬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육종개량 시스템의 문제는 제외하고 단지 우리나라의 식문화에 의한 선호부위의 편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의 측면에서 바라 볼 때 단지 일당증체량이 얼마고, 등지방이 몇 mm이고, 산자수는 얼마나 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중요한 경제적 형질에 대한 육종개량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한 육질의 돼지생산도 중요하다. 다양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번식능력(모계), 성장능력(부계), 육질능력(부계, 도체지수)의 다양한 종돈을 개량하여 계통조성을 통한 우리나라의 양돈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라 하면 소비자의 요구 및 시장요구의 다양성에 크게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돼지의 소비자는 결국 우리 국민이다.

### 2) 지속적인 연구개발

이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돼지의 선호부위인 삼겹살·목살 부위의 양을 도축하지 않고 예측하는 방법을 국내최초로 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부분육 형질들에 대하여 산업적인 관점으로 정의하고 이 형질들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삼겹살과 목살 등의 국내 선호부위의 생산량을 제고할 수 있는 개량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돼지 생체에서 부분육 형질의 추정- 도창희 2007년 한국동물자원과학회)를 수행하고 있다.



▲ 우선 수급구조의 안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양돈업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품질 브랜드 돈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 및 비 선호 부위에 대한 활용도를 높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부가가치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육종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통계육종과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분자육종의 기법을 이용하여 특정 부위에 영향을 주는 형질의 분석과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육종개량과 접목을 시킴으로서 농가 및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 3) 정부의 의식전환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양돈 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중돈개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일선 국가 연구기관에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이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면 일반 전문중돈사업장이라 하여도 한국형 중돈의 개량과 계통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물심양면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애국심만을 강조할 수 없는 시대에 도래했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소비구조의 파악과 개량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 그러면 수입에 의존한 폐쇄적 육종개량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원활히 융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도 요구될 것이고, 민간 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중점 지원하고 산학관의 유기적인 중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3. 맺음말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특정부위에 대한 수급불안정은 뿌리 깊은 양돈 산업의 폐해이다. 그렇지만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식문화 구조를 개선하고 특정부위의 생산을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도를 볼 때, 그리고 국내외의 여건을 볼 때 우리 양돈 산업이 위기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선 수급구조의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제품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양돈업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외국산 돼지고기가 몰려 올 것이고 삼겹살, 목살, 갈비등의 특정 부위에 대한 수입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브랜드 돈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 및 비 선호 부위에 대한 활용도를 높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부가가치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 최우수작

내가만든 고급돈육 자녀건강 나라건강